

청소년 초기 폭력행동의 유형에 따른 관련 맥락 변인*

이 미 리·어 주 경**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폭력행동 유형별 수준을 알아보고, 각 유형별 폭력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환경적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에 소재한 3개 중학교 2학년생 274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폭력행동척도를 사용하여 폭력행동 유형별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심리적, 환경적 변인으로는 스트레스 수준, 자극추구동기 수준, 자아존중감,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 학업성적, 종교, 부모의 직업, 교육 수준과 연령, 어머니 취업 유무, 형제수, 또래 집단의 폭력성 정도, 폭력행동 관한 경험 정도, 하루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주말 TV 시청 시간, 음주 경험 유무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 paired t-test,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폭력행동은 크게 신체폭력, 심각한 대물폭력, 그리고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의 세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 모두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신체폭력 행동을 심각한 대물폭력 행동보다 더 많이 하였다. 세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심리적, 환경적 변인은 스트레스 수준과 음주 경험 유무였으며, 특정 폭력행동 유형에만 관련된 변인으로는 신체폭력의 경우 성별, 자극추구동기 수준, 폭력행동 관찰 경험, 지각된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었고, 심각한 대물폭력은 성별이었으며,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은 폭력행동 관찰 경험과 주말 TV 시청시간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초기 폭력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미시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 서 론

최근 청소년 폭력행동은 그 빈도나 정도가 심각해져서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인 문제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고려되고 있다(김준호, 1997; 심용철, 1999; 양돈규, 임영식, 1998). 10대 청소년들의 학우에 대한 폭력, 집단 괴롭힘(왕따), 교사구타와 같은 학내 폭력과 유흥비를 얻기 위한 폭행, 오토바이 폭주, 폭력조직의 결성 등은 더 이상 낮설지 않은 청소년 폭력의 사례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폭력행동을 비행의 한 하위범주로 기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폭력행동을 집중적이

* 본 연구는 첫째 저자(이미리)가 수행한 1999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 공동 연구과제의 일부로 수행되었음.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고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시도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폭력행동을 비행의 한 하위범주로 포함하여 비행의 정도, 빈도, 그리고 그 관련요인들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들 연구를 통해 폭력행동 관련정보를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96년 서울 지역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약 57%이며(김준호, 이성식, 1996), 이는 1991년 통계치인 36%에 비해 크게 늘어 난 수치이다(김준호, 1991). 더욱이 1998년 현재 서울, 경기 지역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전체의 62%가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68%가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임영식, 1998). 이러한 통계치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 폭력행동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주 범죄 연령층이 18-19세에서 14-17세로 내려오는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난다(법무연수원, 1995; 양돈규, 임영식, 1998).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심리적 변인으로는 스트레스, 자아개념, 자극추구동기, 학업성적, 물질추구적인 가치관, 자아정체감, 우울증, 도덕성 발달들의 다양한 변인들이 제시되고 있다(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전귀연, 1998; Zuckerman, 1979). 환경적 변인으로는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과 직업 수준, 폭력행동의 경험이나 관찰, 폭력적 대중매체에의 노출 정도, 비행친구집단과의 접촉 정도, 학교교육 환경, 사회구조 등이 청소년비행 유발 정도나 수준을 설명하는 변인들로 제시되고 있다(구창모, 1993; 노성호, 1994; 윤진, 박금주, 1991; Huesma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이러한 심리적, 환경적 변인들은 폭력행동을 한 하위 범주로 포함한 청소년비행 관련 변인들이므로 폭력행동만을 설명하기에 민감한 변인들인지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결과이므로 청소년비행의 저연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폭력행동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 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행사하는 폭력행동 유형은 어떠한 것이며 각 유형별 폭력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폭력행동의 구체적 내용과 그 수준을 파악하고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폭력행동 관련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중학생들의 폭력행동에 대해서도 설명력이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선행 연구

1. 폭력행동의 개념

폭력행동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려는 시도로 정의되며(윤진, 1996), 청소년비행의 한 하위 범주로 고려되고 있다. 폭력행동은 공격행동과 개념이나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혼용되기도 하고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두 용어의 차이를 보면 폭력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공격행동과 같지만, 그 행위의 동기가 비규범적이고 비합법적인 경우에는 폭력 혹은 폭력행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며, 폭력행동을 포함하여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합법적인 경우를 총칭하여 공격행동으로 본다(심용철, 1999).

폭력행동을 분류하는 입장은 다양한데 신체적인 폭행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식되어진 행위로 정의하는 입장이 있고(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박윤창 외, 1995; 한경혜, 김영희, 1999),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친구들의 집단적 따돌림(‘왕따’), 위협, 공갈, 욕설과 같은 행위를 심리적 혹은 언어적 폭력행동으로 분류하는 입장이 있다(김재엽, 이서원, 1999; 김재엽, 최선희, 1998). 이상의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고의로 물건을 부수거나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통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동도 폭력행동의 한 유형으로 본다(심용철, 1989).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폭력행동의 개념과 유형을 종합해 보면 폭력행동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나타나는 외현행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크게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대물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행동을 타인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외현행동이라는 데 초점을 둬으로써,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내적인 동기나 성격 특성과 같은 심리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춘 공격성의 개념과 구분하고자 한다.

2. 청소년 폭력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환경적 변인

폭력행동을 하위범주로 포함하는 비행 혹은 공격행동 관련 변인들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관련된 맥락 변인들은 크게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곽금주 외, 1993; 양돈규, 임영식, 1998). 심리적 변인으로 성별, 스트레스, 자극추구동기, 자아존중감, 물질추구적인

가치관, 우울증, 도덕성 발달, 학업성적 등의 다양한 변인이 제시되고 있다.

성별을 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개인적 특성을 기술하는 변인이고 환경적 변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리적 요인으로 보기로 한다. 청소년 비행과 공격행동의 성차를 기술한 통계치에 의하면,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절대적으로 높다. 1996년 현재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남자 91%, 여자 9%로 보고되었으며(양돈규, 임영식, 1998), 서울시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구대상 남학생 중 77%, 여학생 중 45%가 폭력비행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재엽, 최선희, 1998). 빈도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차를 보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최외선, 김갑숙(1990)은 부산 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공격행동 유형이 다름을 보고했는데, 남학생의 공격행동은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공격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공격행동은 남학생에 비해 언어적 공격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행동 조사(김종미, 1997)에서도 폭력행동 유형의 성차에 있어서 같은 경향성이 보고되었다.

스트레스 수준은 청소년기 폭력행동과 관련된 주요 심리적 요인이다. 부모 및 친구관계와 스트레스, 학업 관련 스트레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등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경험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부적응 행동의 한 형태로서(노성호, 1994; 정기숙, 1993; 정현숙, 정문자, 1995), 혹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으로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재엽, 최선희, 1998; 심웅철, 1999; Dodge, 1990, Mark, 1996).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행동으로 보는 입장과 달리 청소년 폭력행동을 긴장 즉 일종의 스트레스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Zuckerman, 1979).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드릴과 모험 즉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비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소재 인문계, 공업계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금지된 것에 대한 도전이나 권태로움을 극복하려는 자극추구동기 부분이 청소년의 비행 정도 변량의 26%를 설명하였다(박윤창 외, 1996).

청소년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도 폭력행동과 관련이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폭력행동을 보이거나 비행 집단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비행에의 가입 정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이들의 일탈

행동에의 개입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윤진, 장근영, 박윤창, 김도환, 1997). 즉 비행에 깊이 개입하지 않은 초범자 집단의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었으며, 비행에 깊이 개입한 집단의 청소년일수록 판단의 준거 집단이 반사회적 집단으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자아를 갖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에 개입하기 쉬우나, 일단 비행에 개입한 청소년은 점차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들이 반사회적 집단으로 바뀔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게 되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집단으로의 복귀가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물질추구적인 가치관을 가질수록, 자아정체감의 확립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성 발달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비행 수준이 높은 경향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전귀연, 1998).

한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청소년 폭력행동 관련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가정, 학교, 친구집단, 대중매체와의 접촉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들에서 일어나는 폭력행동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폭력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는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폭력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집에서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부모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한 경험의 빈도가 청소년의 언어적, 신체적 공격행동과 관계가 있으며(최외선, 김갑숙, 1990),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 혹은 거부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공격 욕구를 증가시켜 폭력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한다(박현선, 김유경, 1997). 또한 청소년 자녀의 부모폭력 관련요인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취업한 어머니보다 전업주부 어머니에 대한 청소년들의 부모폭행 수준이 높다고 한다(김재엽, 이서원, 1999).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학교와 관련하여 학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비행친구 집단과의 접촉이 청소년 폭력행동과 관련된 주요변인이라고 보고되었다(정유미, 김득성, 1998; 최외선, 김갑숙, 1990). 학업에 대한 불안감과 친구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학교 생활 자체에 대한 권태로움 등으로 좌절감과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어 이런 요인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업 분위기와 청소년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교사를 좋아하는 정도가 낮을수록(노성호, 1994), 숙제를 해오는 정도와 공부하는 시간의 양, 공부에 대한 흥미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교사의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훈육이 청소년기 높

은 수준의 폭력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김은경, 1997).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업 불안이 폭력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고등학생 보다는 덜하지만(노성호, 1994)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우울과 공격성의 심리적 경향을 많이 보이며, 이러한 공격성이 비행의 유발과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박현선, 김유경, 1997).

한편 친구집단을 청소년 폭력행동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비행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비행 행동의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폭력행동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습득함과 동시에 친구간에는 서로 때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형성하여 폭력행동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재엽, 최선희, 1998; 노성호, 1994). 특히 친구들과의 음주경험 여부가 폭력행동과 의미있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재엽, 최선희, 1998).

청소년비행과 공격행동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22시간 가량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원, 곽금주, 1989). 이렇게 긴 시간 동안 TV를 봄으로써 청소년기의 사고, 행동,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며, 폭력을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폭력 문화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학이론은 청소년들이 영상매체에서 제시된 폭력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함으로써 폭력행동을 행사한다고 보고있으며, 사회인지이론에서는 폭력적 영상매체가 개인이 갖고 있는 공격적 사고를 활성화, 점화시킴으로써, 혹은 공격적인 지식의 인지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유발시키고 지속시킨다고 설명한다(윤진, 곽금주, 1991; Huesmann, 1986, 1988).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에 나타나는 폭력행동의 유형은 어떠하며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비행 혹은 공격행동 관련 심리적, 환경적 변인들이 청소년 초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동을 설명하는데 민감한 변인들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초기에 나타나는 폭력행동의 유형별 수준은 어떠한가?
2. 청소년 초기에 나타나는 폭력행동의 유형별 관련 심리적, 환경적 변인은 무엇인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강남구, 광진구, 강동구에 소재한 남녀공학 1개 중학교, 남자중학교 1개, 여자중학교 1개를 편의 표집하여,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4학년,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에서 각 2학년씩, 총 8학급을 무선 선정하였다. 남학생 140명, 여학생 134명 총 27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1: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남자 (N=140) 빈도(백분율)	여자(N=134) 빈도(백분율)	전체(N=274) 빈도(백분율)
연령	13세	26(18.6)	20(14.9)	46(16.8)
	14세	93(66.4)	112(83.6)	205(74.8)
	15세	0(0.0)	1(0.7)	1(0.4)
	Missing	21(15.0)	1(0.7)	22(8.0)
부모생존여부	두분생존	137(97.9)	130(97.0)	267(97.4)
	어머니생존	2(1.4)	4(3.0)	6(2.2)
	Missing	1(0.7)	0(0.0)	1(0.4)
가족구성원수	2명	3(2.1)	1(0.7)	4(1.5)
	3-4명	90(64.3)	81(60.5)	171(62.4)
	5-6명	39(27.9)	44(32.8)	83(30.2)
	7-9명	7(5.0)	7(5.2)	14(5.1)
	Missing	1(0.7)	1(0.7)	2(0.7)
형제수	0명	31(22.1)	18(13.4)	49(17.9)
	1명	83(59.3)	75(56.0)	158(57.7)
	2명	19(13.6)	35(26.1)	54(19.7)
	3명이상	7(5.0)	6(4.4)	13(4.8)
부모결혼상태	함께사심	128(91.4)	125(93.3)	253(92.3)
	이혼	7(5.0)	2(1.5)	9(3.3)
	별거	0(0.0)	2(1.5)	2(0.7)
	사별	2(1.4)	4(3.0)	6(2.2)
	기타	1(0.7)	0(0.0)	1(0.4)
	Missing	2(1.4)	1(0.7)	3(1.1)
아버지연령	30대	10(7.5)	4(3.0)	14(5.2)
	40대	92(64.1)	110(82.1)	202(73.6)
	50대	7(5.2)	11(8.2)	18(6.7)
	60대	2(1.5)	1(0.7)	3(1.1)
	Missing	29(21.7)	8(6.0)	37(13.5)

어머니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Missing	33(23.7) 74(52.8) 2(1.4) 0(0.0) 31(22.1)	33(24.6) 91(68.0) 3(2.2) 0(0.0) 7(5.2)	66(24.2) 165(60.0) 5(1.9) 0(0.0) 38(13.9)
아버지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Missing	4(2.9) 14(10.0) 73(52.1) 1(0.7) 28(20.0) 2(1.4) 18(12.9)	0(0.0) 11(8.2) 60(44.8) 4(3.0) 43(32.1) 9(6.7) 7(5.2)	4(1.5) 25(9.1) 133(48.5) 5(1.8) 71(25.9) 11(4.0) 25(9.1)
어머니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졸 Missing	6(4.3) 19(13.6) 82(58.6) 0(0.0) 11(7.9) 1(0.7) 21(15.0)	6(4.5) 16(11.9) 88(61.9) 0(0.0) 21(15.7) 1(0.7) 7(5.2)	12(4.4) 35(12.8) 165(60.2) 0(0.0) 32(11.7) 2(0.7) 28(10.2)
아버지 직업수준	무직 노동직 단순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9인이하) 사무직 경영직(9인이하) 전문직 Missing	6(4.3) 4(2.9) 12(8.6) 6(4.3) 67(47.9) 31(22.1) 0(0.0) 1(1.4) 12(8.6)	4(3.0) 9(6.7) 22(16.4) 4(3.0) 34(28.4) 44(32.8) 4(3.0) 4(3.0) 9(6.7)	10(3.6) 13(4.7) 34(10.4) 10(3.6) 101(36.8) 75(27.5) 4(1.5) 6(2.2) 21(7.7)
어머니 직업수준	무직 노동직 단순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9인이하) 사무직 경영직(9인이하) 전문직 Missing	64(45.7) 2(1.4) 6(4.3) 15(10.7) 35(25.0) 13(9.2) 0(0.0) 0(0.0) 5(3.6)	74(55.2) 8(6.0) 2(1.5) 17(12.7) 15(11.1) 10(7.5) 2(1.5) 0(0.0) 6(4.5)	138(50.4) 10(3.6) 8(2.9) 32(11.6) 50(18.2) 23(8.4) 2(0.7) 0(0.0) 11(4.0)
성적 (반에서)	1-10등 11-20등 21-30등 31-40등 41등이하 Missing	32(22.9) 47(33.6) 30(21.4) 24(17.1) 6(4.3) 1(0.7)	46(34.3) 41(30.6) 30(22.4) 16(11.9) 0(0.0) 1(0.7)	78(28.5) 88(32.1) 60(21.9) 40(14.6) 6(2.2) 2(0.7)
종교	기독교 불교 카톨릭 유교 천도교 기타 무직	49(35.0) 34(24.3) 6(4.3) 2(1.4) 2(1.4) 2(1.4) 45(32.1)	63(47.0) 25(18.7) 15(11.2) 0(0.0) 2(1.5) 1(0.7) 28(20.9)	112(40.9) 59(21.5) 21(7.7) 2(0.7) 4(1.5) 3(1.1) 73(26.6)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연령, 부모 생존여부, 가족구성원수, 형제수,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집단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전체 집단의 특성을 기술하기로 한다. 연구 대상자의 대다수가 14세였고 부모가 생존해 계셨으며,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 중 반이상이(62%) 가족구성원수가 3~4명이라고 하였으며, 30%는 5~6명이라고 보고하였다. 형제수는 전체의 77%가 한 명 혹은 두 명의 형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18%가 형제가 없다고 하였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40대로 전체의 74%의 아버지와 60%의 어머니가 40대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49%가 고졸, 32%가 대졸 이상, 11%가 중졸 이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60%가 고졸, 12%가 대졸 이상, 17%가 중졸 이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전체의 37%가 9인 이하 업체의 자영업자이며, 28%가 사무직, 10%가 기술직이고 나머지는 무직, 노동직, 판매서비스직, 경영직, 전문직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50%가 가정주부였으며, 18%가 9인 이하 업체의 자영업자, 12%가 판매서비스직, 8%가 사무직이며 나머지는 노동직, 단순기술직, 경영직 등에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학교성적은 등급에 따라 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전체의 32%가 반에서 11~20등 정도, 29%가 1~10등, 22%가 21~30등, 15%가 31~40등이었다. 끝으로 연구대상자의 73%가 종교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전체의 41%가 기독교, 22%가 불교, 8%가 카톨릭이었다.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인구학적 정보와 심리적, 환경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그리고 본 연구자가 개발한 폭력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1) 인구학적 정보와 심리적, 환경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

연구 대상의 연령, 부모의 연령 및 교육 수준과 직업, 가족구성원수, 종교, 하루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TV 시청 시간, 스틸과 모험적인 경험을 해 보고 싶은 자극추구 동기,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찰한 경험, 또래집단의 폭력성 정도, 음주 경험 여부, 학교 성적을 묻는 문항들과, 스트레스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 a) 스트레스 척도: 학교성적, 집안사정,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 관계, 이성친구, 선생님과의 관계, 건강 및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묻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에서 ‘매우 많이 받는다’의 5점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Alpha는 .88

로 산출되었다.

- b) 자아존중감 척도: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 Alpha는 .90이었다.

2) 폭력행동척도 : 청소년의 폭력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경(1995)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비행척도 문항 중에서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문항과 김재엽과 최선희(1998)의 폭력비행측정 도구, 박금주(1992)의 공격성측정 도구의 문항을 기초로 개발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각 문항은 청소년들에게서 관찰 될 수 있는 다양한 폭력행동을 기술한다. 지난 한 학기동안 경험한 폭력행동의 발생빈도를 물었으며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치는 (0) 없다, (1) 1~2번 있다, (2) 3~4번 있다, (3) 5~6번 있다, (4) 많다고 구성되어 있다. 폭력행동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통 요인분석 모델의 주축분해법을 적용하여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들간의 상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각회전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폭력행동의 분류에 있어서 세 가지 분류 즉 신체적 폭력, 심리적(언어적) 폭력, 대물폭력에 선행연구들 간 일치를 보이므로(김재엽, 최선희, 1998 : 김준호, 이동원, 1995) 3요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출된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41%를 설명하며, 요인별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별 문항의 내용을 기초로 요인 1은 신체폭력, 요인 2는 심각한 대물폭력, 요인 3은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으로 요인명을 붙였다. 요인 1(신체폭력)은 남의 뺨을 때리다, 밀치다, 남을 단단한 물건으로 치다, 남에게 단단한 물건을 던지다 등의 타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동으로 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심각한 대물폭력)는 통제기관 관계자(예, 경찰)에게 발각된 경우에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대물폭력 행동들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장난으로 불을 지르다,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흔적을 남기다 등이다. 끝으로 요인 3(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은 타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함으로써 심리적 상해를 입히는 폭력행동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의 요인 2에서 제시된 수준보다는 비교적 사소한 수준의 대물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폭력행동의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를 하였다. 신체폭력은 타인을 손이나 다른 기물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동이며, 심각한 대물폭력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물파손,

규칙위반 등의 행동이다. 그리고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은 타인을 향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 신체적인 폭력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동과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물건을 거칠게 다루어 파손하거나 집어던지는 행동이다.

표 2: 폭력행동척도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간 상관관계

문항내용	요인명	I	II	III	h2
22. 발로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요인 I (신체폭력)	.74	.20	.43	.63
26. 치고박고 싸움		.76	.22	.36	.58
20. 밀치거나 움켜잡고 흔들		.73	.26	.51	.57
16. 때리겠다고 위협함		.67	.28	.58	.55
28. 남의 싸움에 끼여들어 몸싸움을 함		.66	.12	.15	.46
19. 뺨을 때림		.65	.25	.43	.45
25. 남에게 단단한 물건을 던짐		.64	.29	.29	.42
29. 먼저 몸싸움을 겁		.63	.14	.34	.40
21. 남을 단단한 물건으로 침		.60	.22	.29	.36
23. 녹초가 될 때까지 심하게 때림		.55	.13	.23	.31
30.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51	.40	.48	.38
24. 칼이나 흉기로 위협함		.47	.28	.25	.25
27. 패싸움을 함		.46	.13	.14	.22
9.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	요인 II (심각한 대물 폭력)	.27	.76	.30	.58
8. 남의 차를 긁거나 타이어에 흙짐을 냄		.18	.74	.18	.55
6. 불을 낸적이 있음		.23	.71	.28	.51
7. 고의로 유리창을 깨뜨림		.16	.61	.17	.46
10. 오토바이 폭주를 함		.28	.59	.22	.36
18. 장난전화를 걸어 욕을 함		.18	.46	.33	.25
14. 내게 잘못된 사람에 대해 뒤에서 욕하거나 헐뜯함	요인 III (언어 및 가벼운 대물 폭력)	.24	.25	.69	.49
1. 물건을 던지거나 걷어차		.39	.27	.69	.48
11. 남에게 소리를 지름		.40	.07	.68	.51
12. 남에게 대놓고 욕설을 함		.44	.18	.68	.49
2. 발을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음		.27	.23	.63	.40
15. 어른들에게 큰소리로 대들		.42	.17	.58	.37
3. 건물에 돌이나 오물을 던짐		.26	.22	.57	.32
13. 남을 무시하고 따돌림		.33	.23	.53	.29
17. 걸가는 모르는 사람을 놀리거나 말로 위협함		.41	.27	.41	.24
4. 공공시설물을 고의로 망가뜨림		.12	.24	.42	.19
5. 공공시설물에 펜이나 칼로 흠집을 냄		.13	.14	.41	.17
아이젠값		8.22	2.18	1.81	
변량원		.27	.07	.06	
요인상관		I	II	III	
I		1			
II		.28	1		
III		.44	.33	1	

신뢰도 지수인 Cronbach Alpha는 전체 .91, 하위요인별로는 신체폭력요인(13 문항)은 .89, 심각한 대물폭력요인(6문항)은 .81,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요인(11 문항)은 .84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질문지는 1999년 여름방학을 전후로 하여 7월과 9월 각각 2주씩 총 4주에 걸쳐 배부, 수집되었다. HR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28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고 274부가 회수되어 9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274부 모두 분석되었다.

4. 분석방법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폭력행동 유형별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행동의 유형별로 문항평균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를 상관표집에 대한 t 검증 *paired t-test*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폭력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환경적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폭력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하루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폭력행동 관찰 경험, 자극추구동기 수준, 또래집단의 폭력성 정도, 주말 TV 시청 시간, 음주 경험 유무, 스트레스 수준, 개인이 지각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 성적,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하였다.

IV. 결과와 해석

1. 폭력행동 유형별 수준

연구문제 1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 점수 수준과 각 유형별 수준의 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 평균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paired t-test*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유형의 문항수가 각기 다르므로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 문항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신체폭력행동과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은 평균점수와 척도치를

고려해 볼 때 한 학기에 1-2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학생들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가 평균치보다 크므로 개인차가 큰 행동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빈도 분포를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신체폭력행동은 전체의 17%가 한 학기 1-2번 혹은 그 이상 행사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나머지 83%는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수준은 빈도분포에 있어서 그 변산의 정도가 더 큰데, 96%가 지난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97%가 신체폭력행동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심각한 대물폭력은 99%가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표3: 폭력행동유형별 문항 평균점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paired t-test 결과

폭력행동 유형 대상	신체폭력 ^a		심각한 대물폭력 ^b		언어폭력과 ^c 사소한 대물폭력		a와 c의 paired t-test결과	b와 c의 paired t-test결과	a와 c의 paired t-test결과
	M	SD	M	SD	M	SD			
남	.59	.62	.23	.37	1.12	.74	7.08***	-15.52***	-12.58***
여	.15	.26	.09	.42	1.16	.71	1.62	-16.02***	-18.6***
전체	.38	.52	.16	.40	1.14	.72	6.32***	-22.11***	-20.83***

그러나 세번째 유형인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은 연구 대상 중학생들이 한 학기에 평균 1-2번 정도는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에 제시된 폭력행동 점수가 문항 평균점수 임을 고려해 볼 때 언어폭력과 사소한 대물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11문항 모두에 대해서 거의 1-2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반응한 것이다.

세 가지 폭력행동의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신체폭력 점수와 심각한 대물폭력 점수의 분포가 편포를 보이므로 세 유형의 폭력행동점수를 모두 제곱근 점수로 변환한 후, 각 유형간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평균 점수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대로 *paired t-test* 결과 남학생의 경우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고, 다음은 신체폭력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을 가장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 중에서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나 신체폭력행동과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간에는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폭력행동점수의 유형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연구문제 2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비행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통해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변인들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가지 폭력행동 점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표4: 심리적, 환경적 맥락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혹은 빈도, 백분율

변인명		성별 통계치		남		여		전체	
				M	SD	M	SD	M	SD
스트레스 수준1				22.98	6.15	22.99	5.72	22.99	5.93
자극추구동기 수준2				3.81	1.04	3.58	1.09	3.70	1.07
자아존중감3				26.56	3.47	26.63	2.45	26.59	3.00
또래집단의 공격성향4				1.74	0.73	1.51	0.70	1.63	0.72
주말 TV 시청 시간				5.13	3.09	7.11	3.25	6.11	3.32
하루 평균 PC게임시간				2.06	1.50	0.79	1.10	1.50	1.51
지각된 가족의 SES5				2.96	0.70	3.00	0.72	2.98	0.71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폭력행동 관찰 경험	전혀없다			69	49.3	74	56.2	143	52.2
	한학기 1-2번			27	19.3	32	23.9	59	21.5
	한달 1-2번			17	12.1	11	8.2	28	10.2
	한주 1-2번			15	10.7	9	6.7	24	8.8
	매일			5	3.6	4	3.0	9	3.3
	Missing			7	5.0	4	3.0	11	4.0
음주 경험 유무	없다			90	64.3	91	67.9	181	66.1
	있다			47	33.6	41	30.6	88	32.1
	Missing			3	2.1	2	1.5	5	1.8

주: 1 스트레스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1: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5: 매우 많이 받는다)로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다.

2 자극추구동기 수준 측정문항은 5점 평정척도 1개 문항으로 문항내용은 스팀있고 모험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며 척도치는 1: 전혀 아니다, 3: 중간 정도다, 5: 매우 그렇다 이다.

3 자아존중감 척도의 각 문항은 4점 평정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10-40점이다.(높은 점수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함)

4 또래집단의 폭력성 측정 문항은 4점 평정척도 1개 문항으로 척도치는 다음과 같다. 1: 나와 함께 다니는 친구는 싸우거나 파격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4:잘 싸우고 파격한 말을 하며 이러한 행동 때문에 근심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5 지각된 가족의 SES는 5점평정척도로 1: 상류, 3:중상류, 3:중류, 4:중하류, 5:하류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인구론적 변인은 성별, 형제수, 종교, 심리적, 환경적 변인들은 스트레스 수준, 자극추구동기 수준, 자아존중감, 학업 성적, 폭력행동 관찰 경험, 또래집단의 폭력성 정도, 음주 경험 유무, 주말 TV 시청 시간, 부모의 교

육 수준과 직업 수준, 부모의 연령, 하루 평균 컴퓨터 게임시간,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었는데 이들 변인중에서 종속변인인 폭력행동점수와 의미있는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을 선정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선정된 변인들은 연구 대상자의 성별, 하루 평균 컴퓨터 게임 시간, 폭력행동 관찰 경험, 자극추구동기 수준, 또래집단의 폭력성 정도, 주말 TV 시청 시간, 음주 경험 유무, 스트레스 수준, 개인이 지각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 성적, 자아존중감이었다.

먼저, 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들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변인들이 연속변인일 경우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명목변인일 경우는 빈도와 백분율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각 척도들의 점수범위를 고려해볼 때 연구대상 중학생들은 중간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드릴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모험을 보통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자신의 가족을 중류층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폭력행동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 또래를 사귀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주말에 평균 2시간을 더 많이 TV를 보고 있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더 많이 컴퓨터 게임하는 데 소모했다. 주변 사람들의 폭력행동을 연구 대상의 52%가 전혀 관찰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으며, 한 학기에 1-2번 관찰한 경우는 22%되었다. 또한 음주 경험은 32%가 있다고 하였다.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폭력행동점수, 특히 신체폭력과 심각한 대물폭력 점수의 분포가 편포를 보이므로 세유형의 폭력행동 점수의 제곱근 변환 점수를 사용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독립변인들간의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 변인들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상관 계수의 분포가 .01-.30까지 낮은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신체폭력행동 점수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신체폭력행동 점수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독립변인은 성별, 스트레스 수준, 자극추구동기 수준, 폭력행동 관찰 경험, 음주 경험 유무,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었다. 이상의 6개 변인은 신체폭력행동 점수 변량의 46%를 설명하였다. 설명변량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공헌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면 성별이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다음은 스트레스 수준이었고, 나머지 네 변인은 비슷한 정도로 신체폭력행동 점수의 변량에 기여하였다. 독립변인과 폭력행동 점수간 관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

보다 신체폭력행동을 더 많이하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극추구동기가 클수록, 폭력행동관찰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폭력행동 수준이 높다. 음주 경험 유무와의 관계 내용은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폭력행동을 많이 행사하였다. 끝으로 자신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신체폭력행동을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체폭력행동 점수에 대한 맥락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β	R ² 증가
성별	-1.40 ^{***}	-.49 ^{***}	.27 ^{***}
스트레스 수준	.07 ^{***}	.29 ^{***}	.11 ^{***}
자극추구동기 수준	.17 [*]	.13 [*]	.03 ^{**}
폭력행동 관찰 경험	.16 [△]	.13 [*]	.02 [*]
음주 경험 유무	.39 [*]	.13 [*]	.01 [*]
지각된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23 [*]	-.12 [*]	.01 [*]
constant	1.84 ^{***}		
전체 R ²			.46 ^{***}

^{*}p<.05 ^{**}p<.01 ^{***}p<.001

두 번째 폭력행동 유형인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점수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점수에 대한 맥락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β	R ² 증가
성별	-.49 ^{***}	-.29 ^{***}	.09 ^{***}
음주 경험 유무	.40 ^{**}	.22 ^{**}	.07 ^{***}
스트레스 수준	.03 [△]	.20 [△]	.04 ^{**}
constant	.48 [△]		
전체 R ²			.20 ^{***}

^{*}p<.10 ^{**}p<.05 ^{**}p<.01 ^{***}p<.001

표 6에 의하면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점수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독립변인은 성별, 음주 경험 유무, 스트레스 수준이었으며, 이들 세 변인은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점수 변량의 20%를 설명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를 보면 성별, 음주 경험 유무, 스트레스 수준 순으로 설명변량에 공헌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술

취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보다 심각한 수준의 대물폭력행동을 더 많이 행사하였다.

폭력행동의 세 번째 유형인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 점수의 변량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맥락 변인들은 스트레스 수준, 폭력행동 관찰 경험, 주말 TV 시청시간, 음주 경험 유무의 4개 변인이었으며, 이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언어폭력과 사소한 대물폭력행동 점수에 대한 맥락 변인의 단계적 종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β	R ² 증가
스트레스 수준	.07***	.36***	.19***
폭력행동 관찰 경험	.16*	.18*	.03*
주말 TV 시청시간	.06**	.18**	.03*
음주 경험 유무	.36*	.15*	.02*
constant	.96**		
전체 R ²			.26***

*p<.05 **p<.01 ***p<.001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바, 네개의 맥락 변인은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 점수 변량의 26%를 설명하였다. 스트레스 수준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36으로 설명변량에 대한 공헌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폭력행동 관찰 경험, 주말 TV 시청 시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각각 .18로 다음 순서였으며, 음주 경험 유무의 회귀계수는 .15로 그 공헌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간의 관계의 내용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행동 관찰 경험이 많을수록, 주말에 TV를 보는 시간이 길수록, 술 취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와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나타내는 폭력행동 유형별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폭력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환경적 변인은 무엇인지 살펴해보았다. 폭력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폭력행동척도의 요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체폭력(예, 남의 뺨을 때리다, 남을 녹초가 될 때까지 심하게 때리다), 심각한 대물폭력(예,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 장난삼아 불을 지르

다),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예, 물건을 던지거나 걷어차다, 남에게 욕설을 하다)의 세 유형이 추출되었다. 대물폭력이 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독립된 두 요인으로 나뉘었으며, 언어폭력이 사소한 수준의 대물폭력과 같은 요인으로 묶였다는 점이 폭력행동에 대한 일반적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김재엽, 이서원, 1999; 심웅철, 1989).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폭력행동에 대한 분류는 주로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척도점수를 통계분석 절차(예, 요인분석)를 적용해 제시된 경험적 분류라기보다 행동의 특성에 따라서 논리적 증거에 의해 분류된 유형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분류 방법이 다름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일반적 분류에서 그 행동 특성이 서로 다른 언어폭력과 대물폭력이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 요인이라는 한 유형으로 묶인 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할 때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는 않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 해 볼 때, 이 두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은 함께 수반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므로 한 요인으로 묶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폭력행동 유형은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이었다. 이 유형을 측정하는 11개의 모든 문항에 대해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한 학기에 한 두 번 이상씩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수준에 있어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초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폭력행동 유형은 남, 녀 모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남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의 행동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체폭력행동과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절수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평균값에 비해서 표준편차가 1-5 배 정도 크다. 이는 이 두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 수준에서 개인차가 큼을 의미한다. 개인차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폭력행동의 경우 남학생은 83%, 여학생은 97%가 지난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행사해 본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의 경우는 남학생의 80%, 여학생의 99%가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의 대부분이 한 학기에 한 번도 신체폭력이나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경험 여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나타나는 낮은 반응률을 감안하더

라도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어 청소년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행동, 예를 들면 친구구타, 폭력조직 결성, 오토바이 폭주 등의 폭력행동은 일반 중학교 재학생인 초기 청소년의 경우 일부 소수, 구체적으로 여학생의 1-3%, 남학생의 17-20%에게서 한 학기에 한 두 번 정도로 나타나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둘째, 중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폭력행동 유형은 언어 및 가벼운 폭력행동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심리적, 환경적 영향변인은 스트레스 수준, 음주 경험 유무, 폭력행동 관찰 경험과 주말 TV 시청 시간이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을 더 많이 행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 행동 혹은 대처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Dodge, 1990).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에게서는 스트레스 중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부모 및 친구관계에 관련된 스트레스, 외모, 학업 성적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될 때 폭력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술에 취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폭력행동을 더 많이 행사하였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일치한다(김재엽, 최선희, 1998). 폭력행동 관찰 경험과 TV 시청시간이 폭력행동 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 결과는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에서의 폭력행동에 대한 해석을 지지한다.

신체폭력과 심각한 대물폭력행동은 전체 연구대상 중학생의 20%만이(54명)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신체폭력은 3%, 심각한 대물폭력은 1% 정도만 행사해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중학생들의 보편적인 폭력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부 소수 청소년들이 행사하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동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어떠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이들의 폭력행동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과 마찬가지로 신체폭력과 심각한 대물폭력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신체폭력행동의 경우 성별, 스트레스 수준, 자극추구동기 수준, 폭력행동 관찰 경험 정도, 음주 경험 유무,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이었으며, 심각한 대물폭력은 성별, 스트레스 수준, 음주 경험 유무로 나타났다.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 관련 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신체폭력 행동의 경우 자극추구동기, 자신의 가족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추가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신체폭력에 대한 설명력이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 보다 더 큼을 보여주었다.

모든 유형의 폭력행동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변인은 스트레스 수준과 음주 경험 유무였으며 폭력행동 유형에 따라 특정 행동에만 관련된 영향변인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폭력행동이 다양하며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심리적, 환경적 변인과 폭력행동의 유형에 따라 고유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가지 유형의 폭력행동과 관계있는 변인들은 주로 심리적 변인들이었으며, 부모의 직업, 교육, 연령, 형제수 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구조적 수준을 나타내는 환경적 변인들이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폭력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행동을 행사하는지, 그에 대한 관련 심리적, 환경적,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폭력행동 유형별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은 심리적 특성에 중점을 둔 미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추후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집단이 아니라 일반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신체폭력행동과 심각한 대물폭력행동 점수의 분포가 정적편포를 보였다. 종속변인의 정상성을 요구하는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환점수(제곱근 점수)를 사용하였으나, 문항의 내용이나 척도치의 재조정을 통해 일반청소년 집단에게 실시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정상분포를 얻을 수 있도록 도구의 세련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 표집에 있어서 확률표집을 통한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 즉 청소년 초기의 폭력행동 유형과 빈도분포, 관련 맥락 변인에 대한 일반화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세 가지 유형의 폭력행동이 대체로 그 심각성 수준에 따라 분류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가장 빈도가 높았던 언어 및 가벼운 대물폭력행동이 심각한 수준의 대물폭력과 신체폭력행동으로 진행되어 나가는지, 아니면 세 가지 폭력행동은 서로 연관성이 없이 신체폭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대물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분류하는 유형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곽금주(1992). 공격영화 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윤진·문은영(1993). 한국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pp. 12-27.
- 구창모(1993). 폭력.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제론. pp. 255-269.
- 김은경(1997). 학교폭력과 폭력의 사회화. 교육개발.
- 김재엽, 이서원(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교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3), pp. 1-14.
- 김재엽, 최선희(1998). 청소년 스트레스가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9, pp. 181-204.
- 김종미(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pp. 17-33.
- 김준호(1997). 한국의 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청소년폭력 국제학술대회 자료집(청소년개발원), pp. 9-29.
- 김준호·이성식(1996). 계층에 따른 학업 성적과 비행과의 관계: 긴장이론과 사회통제 이론의 논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 pp. 97-120.
- 노성호(1994). 청소년 학교생활과 비행. 수사연구, 4, pp. 25-29.
- 박윤창·이미경·윤진(1995). 자각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2(1), pp. 53-64.
- 박현선·김유경(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비행-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8), pp. 113-135.
- 박혜원·곽금주(1989). 아동의 T.V. 시청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 심리학적 연구를 위한 한국문화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 pp. 125-142.
- 법무연수원(1995). 범죄백서. 서울 : 대검찰청.
- 심용철(1989).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의 측정. 한양대 대학생활 연구, 7, pp. 189-209.
- 심용철(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pp. 24-34.
- 양돈규·임영식(1998). 청소년 비행의 최근 동향과 원인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11, pp. 109-132.
- 윤진(1996). 2020년, 청소년의 병리:폭력. 2020년 우리청소년의 모습은? 사회정신건강연구소, pp. 155-185.
- 윤진·곽금주(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2), pp. 53-83.
- 윤진·장근영·박윤창·김도환(1997). 비행 개입 수준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청소년들의 '가능자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pp. 153-166.
- 이미경(1995). 충동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영식(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pp. 1-26.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pp. 87-103.
- 정기숙(1993). 소년비행의 동향과 가족 병리와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pp. 147-159.
- 정유미·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pp. 31-46.
- 정현숙·정문자(1995). 청소년의 긴장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pp. 148-158.
- 최의선·김갑숙(1990).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1).-중학생을 중심으로-. *영남대 인문연구*, pp. 301-321.
- 한경혜·김영희(1999).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2), pp. 27-39.
- Dodge, K. A.(1990).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NY: Cambridge.
- Huesmann, L. R.(1986). Psychological processes promoting the relation between exposure to media violence and aggressive behavior by the viewer.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2, pp. 125-140.
- Huesmann, L. R.(1988).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Vol. 14, pp. 13-24.
- Huesmann, L. R., Eron, L. D., Lefkowitz, M. M., & Walder, L. O.(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 Psychology*, Vol. 20 (6), pp. 1120-1134.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uckerman, M.(1979). Sensation seeking. In H. London & J. Exner (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Y: Wiley.

ABSTRACT

Analysis on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Correlated with Early Adolescents' Violent Behaviors

Lee, Mee-Ry · Auh, Joo-Khyng*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types of violent behaviors and the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the violent behaviors among early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274 second graders of three middle schools in Seoul. We measured their violent behaviors using the Adolescent Violent Behavior Scale created by the researchers and various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paired t-tes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 found three types of adolescent violent behaviors including 1) physical violent behaviors, 2) serious object violent behaviors, and 3) verbal and minimal object violent behaviors. The levels of verbal and minimal object violent behaviors were the highest, the physical violent behaviors were the second, and the serious object violent behaviors were the least in the frequency.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three types of violent behaviors using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we found that levels of stress and drunken experiences significantly explained the variances of all the three types of violent behaviors. Each type of the violent behaviors was explained separately by sex, stimulate-seeking motivational levels, observation of violent behaviors, perceived social-economic status of family, or weekend watching TV hours.

*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